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 ①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고려대학교 ‘올리브 프로젝트’

— 대학도서관의 장벽을 없애라! —

고려대학교 올리브*

올리브 프로젝트 활동 소개

대학 도서관 개방에 대한 주장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자료를 대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자료열람은 할 수 있고, 또 일정 비율의 열람실 공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개방이 최근 동국대, 서울대 등에서 행해졌고, 이 외에도 배재대, 계명대 등의 대학에서도 중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다.

이처럼 점차 많은 수의 대학에서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자리, 혹은 책이 남아서’가 아니다. 대학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도 알게 된 대학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학 도서관 개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

왔던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 도서관 개방운동의 흐름과, 그에 대한 논의는 한 두 개의 대학에 제한된 상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직 수많은 대학 도서관들이, 출입문에 버젓이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개방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학도서관 개방이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려대에서 도서관 개방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불한당(학내 언론단체), 생활도서관(학생자치도서관), 장애인권위원회 등이 ‘올리브 프로젝트’(Open-LiBRary Project, 이하 올리브)라는 연대체를 형성하고,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올리브는 지난 겨울부터 한 학기에 걸쳐 지속

* <http://www.kujachi.net/bbs/zboard.php?id=olib>, e-mail : bi-jun@hanmail.net

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학생 사회 내에서 올리브의 문제의식을 공유시키기 위해서 수차례 자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금년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서관 사서들을 만나서 올리브가 고민하는 것들이 리모델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내에서는 도서관 문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생겨났었고, 그 논쟁 중의 대부분은 '도서관 개방'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올리브는 지난 5월 31일에 도서관 개방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 학내 외의 적지 않은 분들이 참석해서 도서관 개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도대체 왜, 대학도서관을 개방해야 하는가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왜 내가 등록금을 내고 들어온 대학의 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하는가' 라는 반론을 많이 제기한다. 그런데 대학의 '내부인' 과 '외부인' 을, 그것도 등록금의 지불 유무를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생각의 기저에는, 대학은 돈을 지불한 사람들의 '사유화된' 공간이고,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다.

올리브는 우선 근본적인 측면에서, 대학을 이처럼 사적인 공간으로 사고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공립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아무

리 사립재단의 관리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며, 공공성을 그 성격의 본질로 하고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립대학 역시, 대학이 재단의 사적인 소유물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다 떠맡지 못하고 있는 공적인 교육에 대한 역할을 대신 자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대학 속에 자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도서관이, 스스로가 지불한 등록금만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대의 경우만 해도, 사립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씩의 국가보조금이 도서관에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단순히 국가의 돈, 엄밀히 말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보다 근본적인 지점, 즉 얼마나 세금이 투여되는가가 아니라 그러한 돈이 대학에 지원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학은 교육을 위한 공간이고, 이 공간의 목적 자체에 있어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 밖의 사람들도 자신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돈이 도서관에 지원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돈을 지불한 사람=이용자' 라는 단순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대학도서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일부 학생들

의 주장은 그리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 했을 때, 그 공공성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단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고민을 자임해서 떠맡고, 사회 구성원들을 '대리' 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공공성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직접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타인에게 -소수의 지배층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가 고민하고 공부한 지적 도구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교육의 공공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대학은 사회 속에서 생성된 수많은 정보들을 자신의 영역 속에 독점시켜 놓고, 그 영역을 개방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적·사회적 특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식이란 것은 원래 개개인의 손과 머리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회의 모든 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사용권을 제한하고 그것을 특권화시킨 것이다. 대학은 스스로의 몫이 아니었던 그러한 특권을 해체하고, 독점적인 지식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대학 도서관 개방은 설득력을 가진다. 현재 한국의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자문해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장서

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은 곳이 많아서, 사실 지역주민들 중에서 책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사회에 새로운 도서관들을 건립해서 지역의 지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매우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 개방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 개방의 뜨거운 감자, 열람실 문제

어느 대학에서든지 간에,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면 즉각적으로 제기되는 반론이 있다. '현재의 열람실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도 부족하는데, 도서관을 개방하면 학생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것이다. 물론, 도서관 개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현재 모든 학교에서 열람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란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도서관을 지금의 형태 그대로 유지한 채로 두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실제로 지금 도서관에서 열람실 부족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서관 열람실'이 아니라 '독서실'이다. 열람실이란 것은 도서관 안의 장서를 열람하기 위한 공간, 즉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시험공부를 위해서, 고시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용한 자리'에 그치는 공간이 아닌 것이다.

그러한 독서실 공간의 필요성을 물론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취

업이나 고시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적 조건 속에서, 그러한 공간이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학생들은 열람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대학 당국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각 단과대 별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요구할 수 있고, 고려대의 경우 현재 지어지고 있는 제2교양관, 제2경영관, 100주년 기념관 등에 그러한 공간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라는 것은, '우리의 도서관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나누어 준다' 라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도서관 개방은 이미 대학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서 확장되어 나오는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러한 도서관 개방에, '아직 우리의 몫이 충분하지 않아서,' 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앞으로의 활동

올리브는 지금까지 활동의 영역이 주로 학내에 머물러 왔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지역사회의 단체들과 직접 특정한 행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지 못했었다.

그런데 도서관 개방 운동은 그 흐름이 학내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설득력은 반감되고 실질적인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니 만큼,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 나서줄 때 더 많은 반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올리브는 학내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연대체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서관 개방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많은 지역단체들의 참여를 바란다. (김필 : 이민준)

도서관인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문화 편집실입니다.

* 전화 : 02-535-4868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과 사진, 회원, 인사, 도서관과 관계 되는 수필 또는 수기 등을 보내주세요.

* 전송 : 02-535-5616

* E-mail : w3master@korla.or.kr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도서관인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담당 : 심요정